

##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김정민<sup>1</sup>, 최혜옥<sup>2</sup>

<sup>1</sup>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The Convergence Effect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ung Min Kim<sup>1</sup>, Hye Ok Choi<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C시, J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19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성지능은 긍정심리자본( $r=.688, p=.000$ ), 문제해결능력( $r=.594, p=.015$ )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문제해결능력( $r=.730, p=.000$ )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대인관계만족도,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복원력이었으며 설명력은 61.7%였다( $F=31.606, p=.000$ ).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대인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93 nursing college students located in C and J cities from March 11 to May 31, 2021.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affecting problem-solving ability were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elf efficacy and resiliency among the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at order,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61.7% ( $F=31.606, p=.000$ ). Based on this study,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to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requir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oblem solving 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Hye Ok Choi(hyeau@naver.co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지며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시 되면서, 특히 간호사는 질병치료는 물론 환자를 최절전에서 케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치료자, 보호자,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조명되고 있다[1]. 이와 같이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의료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대상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은 크게 대두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대상자의 안위를 증진해야 하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다[2].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3]. 이는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들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신속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역량임이 확인 되었고[4],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더 많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2] 이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 대학생이 갖춰야 할 중요한 간호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4]. 또한 감성지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5],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버려내게 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의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되고 있다[6,7]. 감성지능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잘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5] 간호사가 자신과 환자의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리경험하게 되어 소진과 피로를 유발하므로 감성지능을 치료적으로 잘 활용하여 간호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성지능과 함께 구성원들의 타고난 성장잠재력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주목되고 있다. 긍

정심리자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전적이고 성공적인 태도로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고 실패시에도 금방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향상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8]. 특히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력은 문미영의 연구[9]와, 김향하, 김영선의 연구[10] 등에서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의 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11,12] 긍정심리자본이 감성지능과 함께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지능과 긍정심리자본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에서도 서비스종사자나 일반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자본과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13,14] 또는 감성지능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15]만 있을 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감성지능과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을 파악한다.
- 셋째,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넷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C시, J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2,3,4 학년 학생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5, 효과크기 .15,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으로 예측변수 7로 산정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90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목표인원으로 하였으며 200부중 19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19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5].

대상자의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aw가 개발한 도구[5]를 정현우가 변안한 도구[16]를 사용하였다.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으로 총 16문항이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현우의 연구[13]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 2.3.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17].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Luthans와 Luthans, Luthans의 이론[17]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 맥락에 맞게 개발한 유현숙의 도구[18]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이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유현숙의 연구[18]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이었다.

#### 2.3.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업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대표적 역량을 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이우숙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C, J시 소재한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연구실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후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 처리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 평균 시간은 10-20분 정도로 소요되었으며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 능력, 효과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 절차, 소요 시간, 익명성 보장, 연구철회 및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성된 설문조사 내용은 보안을 철저히 실시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문서로 보관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는 연구 규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학생이 182명(9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2학년 32.1%, 3학년 32.6%, 4학년 35.2%였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4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96명(49.7%), 113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동기는 '자원해서'가 38.8%, '취업' 37.3%, '추천' 14.5%, 기타 9.3%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3)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1	5.6
	Female	182	94.3
Grades	2nd	62	32.1
	3rd	63	32.6
	4th	68	35.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6	49.7
	Moderate	85	44.0
	Unsatisfied	12	6.2
Interpersonal satisfaction	Satisfied	113	58.5
	Moderate	75	38.8
	Unsatisfied	5	2.5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ed	72	37.3
	Recommendation	28	14.5
	Voluntary	75	38.8
	Other	18	9.3

###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5.09 \pm 0.81$  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은 5점만점에 평균  $3.67 \pm 0.58$  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항목들의 점수는 자기효능감이  $3.65 \pm 0.62$ , 희망이  $3.86 \pm 0.70$ , 낙관주의가  $3.58 \pm 0.68$ , 복원력이  $3.55 \pm 0.66$  이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8 \pm 0.57$ 이었다.

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blem Solving Competency (N=193)

Variables		Range	Min	Max	M±SD
Emotional Intelligence		1-7	2.56	7.00	5.09±0.8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 efficacy	1-5	1.00	5.00	3.65±0.62
	Hope	1-5	1.00	5.00	3.86±0.70
	Optimism	1-5	1.33	5.00	3.58±0.68
	Resiliency	1-5	1.75	5.00	3.55±0.66
total		1-5	1.82	5.00	3.67±0.58
Problem Solving Competency		1-5	2.17	5.00	3.58±0.57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은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은 성별( $t=.915, p=.019$ ), 전공만족도( $F=11.171, p=.000$ ), 대인관계만족도( $F=13.444, p=.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전공만족도( $F=15.919, p=.000$ ), 대인관계만족도( $F=10.942, p=.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은 학년( $F=3.676, p=.027$ ), 전공만족도( $F=6.912, p=.001$ ), 대인관계만족도( $F=12.359, p=.00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감성지능은 긍정심리자본( $r=.688, p=.000$ ), 문제해결능력( $r=.594, p=.015$ )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문제해결능력( $r=.730, p=.000$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 according to general for Characteristics (N=1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Emotional Intelligence	t/F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F(p)	Problem Solving Competency	t/F(p)
				M±SD		M±SD		M±SD	
Gender	Male <sup>a</sup>	11	5.6	5.25±1.09	.915 (.019) a)b	3.84±.55	1.383 (.821)	3.69±.55	0.892 (.873)
	Female <sup>b</sup>	182	94.3	5.07±.77		3.66±.59		3.57±.57	
Grades	2	62	32.1	4.96±.87	1.806 (.167)	3.62±.59	1.564 (.212)	3.50±.56	3.676 (.027)
	3	63	32.6	5.08±.81		3.63±.56		3.51±.55	
	4	68	35.2	5.23±.73		3.78±.60		3.73±.5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sup>a</sup>	96	49.7	5.31±.74	11.171 (.000) a,b)c	3.85±.52	15.919 (.000) a,b)c	3.72±.57	6.912 (.001) a,b)c
	Moderate <sup>b</sup>	85	44.0	4.96±.78		3.57±.56		3.48±.54	
	Unsatisfied <sup>c</sup>	12	6.2	4.39±.89		3.07±.64		3.29±.49	
Interpersonal satisfaction	Satisfied <sup>a</sup>	113	58.5	5.30±.78	13.444 (.000) a,b)c	3.82±.52	10.942 (.000) a,b)c	3.72±.57	12.359 (.000) a,b)c
	Moderate <sup>b</sup>	75	38.8	4.88±.72		3.50±.61		3.45±.49	
	Unsatisfied <sup>c</sup>	5	2.5	4.12±.94		3.19±.50		2.92±.52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ed	72	37.3	5.01±.84	2.562 (.056)	3.64±.58	2.594 (.054)	3.48±.56	2.307 (.078)
	Recommendation	28	14.5	5.25±.80		3.68±.68		3.66±.58	
	Voluntary	75	38.8	5.16±.70		3.76±.50		3.68±.54	
	Other	18	9.3	4.46±1.29		3.18±.69		3.35±.68	

\*a,b,c=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for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blem Solving Competency (N=193)**

Variable	Emotional Intelligence r(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p)	Problem Solving Competency
Emotional Intelligence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688(.000)	1	
Problem Solving Competency	.594(.000)	.730(.000)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Solving Competency (N=193)**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53	.29	-	1.76	.079	
Major satisfaction	-.00	.05	-.00	-.10	.919	
Interpersonal satisfaction	.19	.06	.19	3.18	.002	
Emotional Intelligence	.13	.05	.19	2.80	.005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 efficacy	.13	.07	.09	1.96	.050
	Hope	.15	.11	.17	1.38	.169
	Optimism	.11	.07	.13	1.69	.091
	Resiliency	.39	.09	.46	4.21	.000
Adj R2= .617 F= 31.606 p=.000						

3.5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을 예측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bin Watson 값 2.275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가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가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동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을 예측변수

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설명하는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1.606$   $p<.001$ ).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심리자본 하위영역 중 복원력( $\beta=.46$ ,  $p=.000$ )이 가장 유의한 변수였으며 이외에도 자기효능감( $\beta=.09$   $p=.050$ )이 유의한 변수였다. 감성지능( $\beta=.19$ ,  $p=.005$ ), 대인관계만족도( $\beta=.19$ ,  $p=.002$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61.7%이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이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의 문항 평균은 5.09점(7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주은, 채현주[21]의 5.10점, 한승희[7]의 5.11점과 유사한 수준이며,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학년, 종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1]와 대인관계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7]와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정도는 논문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어 반복연구를 통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의 문항 평균은 3.6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문항에서는 희망이 가장 높고 복원력이 가장 낮았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 정미라[22]의 연구와 이소영, 이경희[23]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낙관주의가 가장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에는 학년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문항 평균은 3.58점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승희[7]의 연구에서는 3.64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 임상실습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에게 문제해결능력은 간호현장에서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핵심역량이므로 [24] 대학생이 간호교육 과정에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승희[7]와 이외선, 노윤구[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대인관계만족도,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복원력이었으며 설명력은 61.7%였다( $F=31.606$ ,  $p=.000$ ). 감성지능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승희[7]와 이외선, 노윤구[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25]에서 문제해결능력과의 감성지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26] 감성지능에 기반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연구에서 실험 직후와 2달 후까지 감성지능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간호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며 대상자에게 만족도를 증가시키므로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만족도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현, 권경자, 이승희[27]의 연구, 염은이[28]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였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정희, 유재용, 박주영[29]의 연구에서 주관적 대인관계를 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대인관계가 좋으면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잘 이어가기 때문에 대상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선희, 심인옥[3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김향하, 김영선[3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적응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으므로[32]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비 간호사가 임상현장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복원력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33]에서 복원력은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복원력이 높을수록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34]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복원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긍정심리자본은 통합된 개념으로 하위요인으로서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과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긍정심리자본, 문제해결능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대인관계만족도,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복원력이었으며 설명력은 61.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대상자의 건강관리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긍정심리자본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대학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출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하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를 반복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M. S. Lee & M. A. Choi. (2021). Nurses working hard on the front lines of COVID-19.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8(1), 33-39. DOI : 10.16952/pns.2021.18.1.33
- [2] A. B. Çevik & N. Olgun. (2015). Solving skills affect success in nursing process applications? an application among Turkish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knowledge*, 26(2), 90-95. DOI : 10.1111/2047-3095.12043.
- [3] P. P. Heppner & C. J. Krauskopf. (1987).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3), 371-447. DOI : 10.1177/0011000087153001
- [4] Y. H. Shin. (2012). Influencing Factors for Nurses' Problem Solving Ability Related to Dysfunctional Belief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8(3), 402-412.
- [5] C.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 10.1016/S1048-9843(02)00099-1
- [6] O. S. Lee & Y. G. Nho. (2017).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roblem Solving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349-358. DOI : 10.14400/JDC.2017.15.12.349
- [7] S. H. Han. (2017). Effecting Factors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5), 245-254.

- DOI : 10.14257/ajmahs.2017.05.53
- [8] M. O. Yoo. (2017).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Strength on Perceived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168-176. DOI : 10.5762/KAIS.2017.18.2.168
- [9] M. Y. Moon. (2020).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3), 277-292. DOI : 10.22251/jlcci.2020.20.3.277
- [10] H. H. Kim & Y. S. Kim. (2020).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6), 1729-1742. DOI : 10.22143/HSS21.11.6.122
- [11] O. S.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36-6043. DOI : 10.5762/KAIS.2015.16.9.6036
- [12] H. Y. Song & S. H. Shin. (2016).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628-40. DOI : 10.5762/KAIS.2016.17.9.628
- [13] X. Wang & X. Lian. (2015).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al labor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of service employees: The moderating role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Management*, 5(6), 388.
- [14] E. Şimşek & H. Aktaş. (2016). Is psychological capital a form of emotional intelligence? A research on university students.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Special issue-September 2016. DOI : 10.30935/ojcm/5669
- [15] S. Deniz.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prospective teacher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8(24), 2339-2345.
- [16] H. W. jung & C. H. Kim.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LMX).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4(3), 167-186.
- [17] F. luthans & C. M. Youssef.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DOI : 10.1016/j.orgdyn.2004.01.113.
- [18] H. S. Yoo. (2004). *Empirical Study on Women's Human, Social and Psychological Capital : Focusing on Daejeon City*. Doctoral dissertation. Dawjeon University, Daejeon.
- [19] T. Y. Jung.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 [20] W. S. Lee, S. H. Park & S. Y. Choi. (2008). Development of a Korean Problem Solving Process Inventory fo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of Nursing*, 15(4), 548-557.
- [21] J. E. Song & H. J. Chae. (2014).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02-512. DOI : 10.5977/jkasne.2014.20.4.502
- [22] M. R. Jung & E. Jung. (2020). Effects of Empowerment and Academic Resilience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45-352. DOI : 10.14400/JDC.2020.18.6.345
- [23] S. Y. Lee & K. H. Lee. (2018).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69-279. DOI : 10.15207/JKCS.2018.9.5.269
- [24] S. J. Lee, Y. M. Park & S. M. Noh. (2011).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with hybrid model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nd self confiden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2), 170-182. DOI : 10.7475/kjan.2013.25.2.170
- [25] E. Sabahattin. (2013). Middle bronze age pottery kilns at şaraga höyük. *Belleten*, 77(278), 1-14.
- [26] S. Shahbazi, M. Heidari, E. H. Sureshjani & P. Rezaei. (2018). Effects of problem-solving skill train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1-7.  
DOI : 10.4103/jehp.jehp\_50\_18.

- [27] J. H. Kim, K. J. Kwon & S. H. Lee. (2017).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295-307.  
DOI : 10.14400/JDC.2017.15.4.295
- [28] E. H. Youn. (2019).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Stress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209-220.  
DOI : 10.35873/ajmahs.2019.9.1.022
- [29] J. Y. Yoo, J. Y. Park & J. H. Woo. (2015).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nd Work as Meaning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5), 480-488.  
DOI : 10.11111/jkana.2015.21.5.007
- [30] S. H. Yang & I. O. Shim. (2016).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6(5), 612-622.  
DOI : 10.5392/JKCA.2016.16.5.033
- [31] H. H. Kim, & Y. S. Kim. (2020).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self -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6), 1729-1742.  
DOI : 10.22143/HSS21.11.6.122
- [32] S. J. Lee. Y. M. Park & S. M. Noh. (2013).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with hybrid model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nd self confiden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2), 170-182.  
DOI : 10.7475/kjan.2013.25.2.170
- [33] K. H. Kyung. & H. J. Ju. (2013). The effects of children resilienc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7(3), 437-457.
- [34] H. S. Hong. & H. Y. Kim. (2016). Effects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v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2), 221-234.

### 김 정 민(Jung Min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대학생, 감성지능,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대처
- E-Mail : loveaf@kosin.ac.kr

### 최 혜 옥(Hye Ok Choi)

[정회원]



- 2018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감염예방
- E-Mail : hyeau@naver.com